

한국편 

atget

GLOBAL EXPORT
TRENDS

2015

FEB

K-09

2014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5년 전망

I. 2014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5년 전망

II. 국제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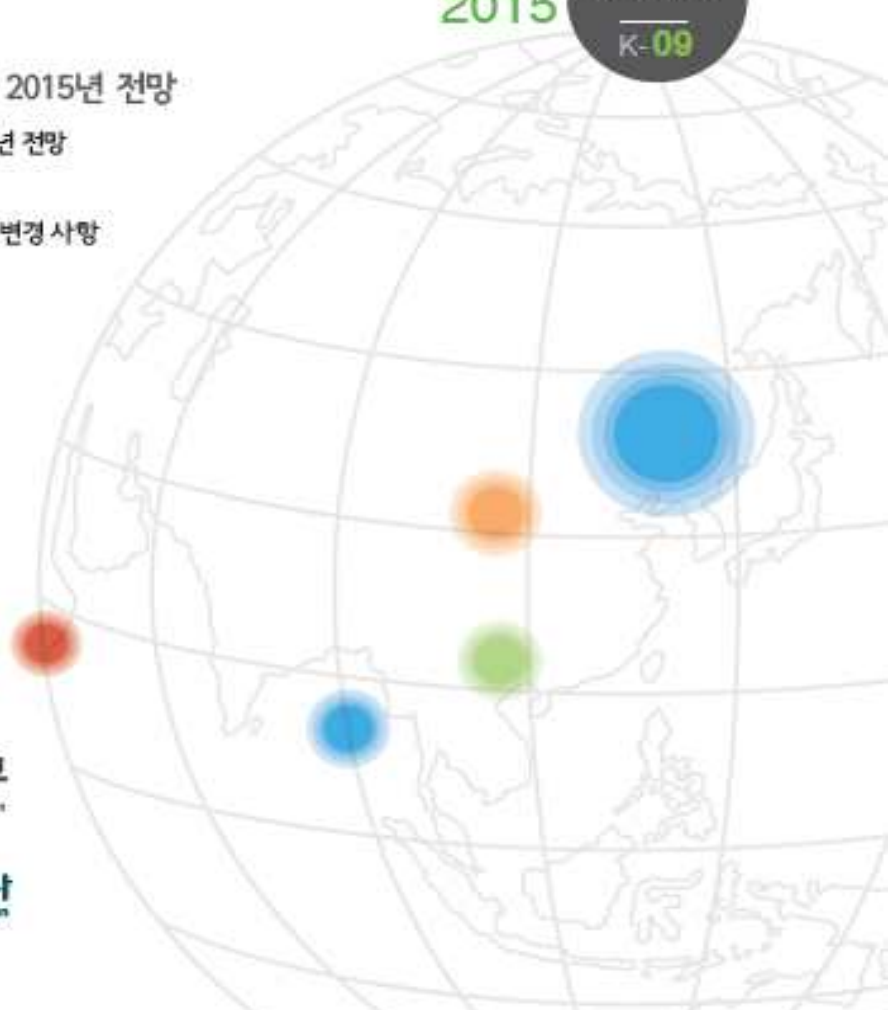
III.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I. 2014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5년 전망

작성자: 이병훈

1. 2014년 농식품 수출동향 및 평가
2. 2015년 농식품 수출환경 전망
3. 2015년 농식품 수출 전망
4.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 지난해는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2013년에 이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과 러시아의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되었다. 그러나 2013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었던 ASEAN 지역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정부차원의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 시행과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억 달러를 상회한 6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14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8.1% 늘어나 외형적으로 매우 성장한 반면,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업체의 실익은 성과대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일본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엔화 저하가 전망되는 올해에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FTA 수출액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약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를 활용한 역내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4년 농식품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4.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15년 세계경제는 유가하락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전년(2.6%) 보다 소폭 상승한 3.0% 대의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경기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도 농식품 수출은 수출경기 회복과 정부의 공세적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년대비 4.7~15.7% 증가한 64.8~71.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 2014년 농식품 수출동향 및 평가

1) 총괄

2014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6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30.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9%, 하반기는 31.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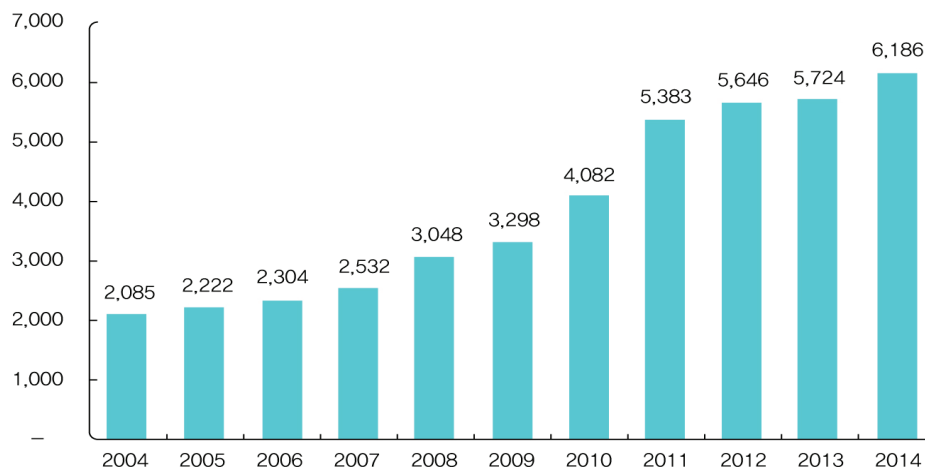
정부의 수출업체 지원 강화 등 우리 내부적인 노력과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으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6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정부의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13.9)' 수립 등 수출업체 지원 강화 노력과 2013년 주요 농식품 수출대상국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이 지난해 농식품 수출 60억 달러 달성을 견인하였다.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그리스 재정위기, 에볼라 창궐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였으나, 미국의 경기부양책 선전으로 인한 경기회복 등 수출환경 개선이 농식품 수출 증가세에 일조하였다.

연도별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2) 부류별 수출동향

● 신선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은 11.4% 증가하였다.

- 상반기 신선농식품과 가공식품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 지연에도 불구하고 각각 0.2%,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반기 들어 가공식품은 상반기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신선농식품은 김치, 파프리카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감소하였다.
 - 특히 AI 추가 발병으로 가금류 수출이 급감하였고 일본의 엔저 장기화 및 소비세 인상으로 대일본 주력 수출품목인 김치, 파프리카, 화훼류 수출이 크게 부진하여 하반기 신선농식품 수출은 대폭 감소하였다.

■ 2014년 농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1~6월	7~12월	1~12월	1~6월	7~12월	1~12월
합 계	2,781 (2.6)	2,944 (0.3)	5,725 (1.4)	3,028 (8.9)	3,159 (7.3)	6,186 (8.1)
신선농식품	563 (8.4)	618 (10.2)	1,181 (9.4)	564 (0.2)	559 (△9.5)	1,123 (△4.9)
가공식품	2,218 (1.2)	2,326 (△2.0)	4,544 (△0.5)	2,464 (11.1)	2,599 (11.7)	5,064 (11.4)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 [신선농식품] 단감(24.7%), 배(14.8%), 딸기(12.0%), 인삼류(5.2%) 등이 증가한 반면, 화훼류(△40.8%), 밤(△29.2%), 닭·오리고기(△17.4%), 파프리카(△8.0%), 김치(△5.9%) 등은 부진하였다.

- (단감) 양호한 기상여건과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수출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배)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 현지인 중심의 수요층 확대와 베트남 등 신흥시장의 개척으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 (딸기) 홍콩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딸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 (인삼류) 한류의 영향으로 대중국·홍콩 무역에서 뿌리삼 수출이 급증하였고, 일본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삼음료 수요가 늘어나 지난해보다 수출이 확대되었다.
- (화훼류) 국내 화훼류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일본의 화훼소비 침체와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41%까지 급감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닭·오리고기) 연초부터 발생한 AI의 영향으로 닭·오리고기에 대한 수출중단과 삼계탕 수요의 감소 등으로 수출실적이 부진하였다.
- (파프리카) 엔저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 2014년 주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3			2014		
	1~6월	7~12월	1~12월	1~6월	7~12월	1~12월
인삼류	75 (△16.5)	100 (63.9)	175 (16.0)	88 (17.4)	96 (△4.1)	184 (5.2)
김 치	46 (△14.0)	43 (△18.5)	89 (△16.2)	43 (△6.5)	41 (△5.3)	84 (△5.9)
파프리카	50 (△2.7)	37 (△1.1)	87 (△2.0)	48 (△4.0)	32 (△13.2)	80 (△8.0)
배	5 (△44.1)	50 (22.7)	55 (10.2)	15 (192.3)	48 (△3.6)	63 (14.8)
유자차	19 (4.4)	24 (6.2)	43 (5.4)	20 (2.1)	24 (△1.7)	43 (△0.2)
채소종자	20 (10.2)	21 (△8.4)	40 (△0.2)	17 (△11.3)	22 (5.8)	39 (△2.4)
닭·오리고기	19 (△15.7)	22 (21.5)	41 (0.7)	16 (△19.7)	19 (△15.5)	34 (△17.4)
딸기	22 (32.1)	8 (1.3)	30 (22.6)	24 (7.7)	10 (25.0)	33 (12.0)
버섯류	15 (20.3)	18 (10.2)	34 (14.6)	16 (1.9)	17 (△7.7)	33 (△3.3)

구 분	2013			2014		
	1~6월	7~12월	1~12월	1~6월	7~12월	1~12월
화훼류	16 (△32.8)	26 (△40.1)	42 (△37.5)	8 (△53.0)	17 (△32.9)	25 (△40.8)
밤	1 (22.2)	32 (△9.4)	33 (△8.6)	1 (27.3)	22 (△31.2)	23 (△29.2)
토마토	7 (15.8)	8 (5.6)	14 (10.1)	6 (△6.1)	8 (△1.3)	14 (△3.1)
단 감	1 (0.0)	10 (△19.7)	10 (△18.8)	0 (△33.3)	13 (27.6)	13 (24.7)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 [가공농식품] 조제분유(30.2%), 껌(27.5%), 고추장(18.2%), 음료(15.7%)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마요네즈(△21.2%), 막걸리(△18.6%), 설탕(△14.7%), 소주(△7.4%) 등은 감소하였다.

- (조제분유)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4~6월 중순까지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수입분류 통관 기준으로 수출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7월부터는 GM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출이 정상화되었고, 베트남의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분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졌다.
- (껌) 주력 수출지역인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일본 여행객수 증가에 따른 면세점 수요 증가와 홍콩·베트남 등 신규시장의 수출 증가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고추장) 한류 드라마 인기와 중국 평리위안 여사의 고추장 구입 등의 영향으로 중국 최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 고추장 소비가 증가하였고, 미국에서 한국산 '핫소스', 고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수출량이 급증하였다.
- (음료) 인도네시아에서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한국산 음료 수요가 증가하였고 중국·홍콩 등 중화권 시장으로의 꾸준한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마요네즈)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서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 (막걸리)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막걸리 소비가 증가하였지만, 최대 수출국인 일본의 주류 문화가 무알코올 음료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막걸리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수출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 (소주)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에서의 한류열풍 약화와 험한 기류 확산,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영향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 2014년 주요 가공식품 수출실적 ■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3			2014		
	1~6월	7~12월	1~12월	1~6월	7~12	1~12월
커피련	222 (△15.4)	303 (△12.0)	525 (△13.4)	309 (39.7)	360 (18.6)	669 (27.5)
커피조제품	146 (2.9)	161 (3.1)	306 (3.0)	139 (△4.7)	165 (2.8)	304 (△0.8)
음 료	131 (16.5)	113 (△0.9)	244 (7.8)	150 (14.2)	132 (17.5)	282 (15.7)
라 면	112 (7.5)	101 (△1.5)	213 (3.1)	106 (△5.8)	103 (2.5)	209 (△1.9)
설 탕	100 (△23.6)	103 (△21.9)	203 (△22.7)	81 (△19.4)	92 (△10.4)	173 (△14.8)
비스킷	63 (25.1)	70 (18.7)	133 (21.7)	73 (16.7)	79 (12.9)	152 (14.7)
제3맥주	67 (△5.8)	73 (△0.5)	140 (△3.1)	73 (9.2)	70 (△5.1)	142 (1.7)
소 주	54 (△13.0)	54 (△17.3)	108 (△15.2)	47 (△11.8)	52 (△3.2)	100 (△7.4)
조제분유	37 (40.8)	33 (7.1)	70 (22.4)	34 (△6.3)	57 (70.3)	91 (30.2)
맥 주	33 (△2.1)	39 (15.4)	72 (6.6)	35 (4.5)	38 (△1.5)	73 (1.3)
마요네즈	17 (7.4)	19 (△11.1)	37 (△3.2)	11 (△37.4)	18 (△6.8)	29 (△21.2)
고추장	11 (△1.8)	13 (6.5)	24 (2.5)	15 (31.3)	14 (7.6)	29 (18.2)
막걸리	10 (△58.6)	9 (△28.3)	19 (△48.8)	8 (△21.4)	7 (△15.1)	15 (△18.6)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국가별 수출동향

● 수출 성장세가 지속된 ASEAN 지역과 경기부양책이 나뉘는 성과를 거둔 미국, EU지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및 저유가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러시아로의 수출은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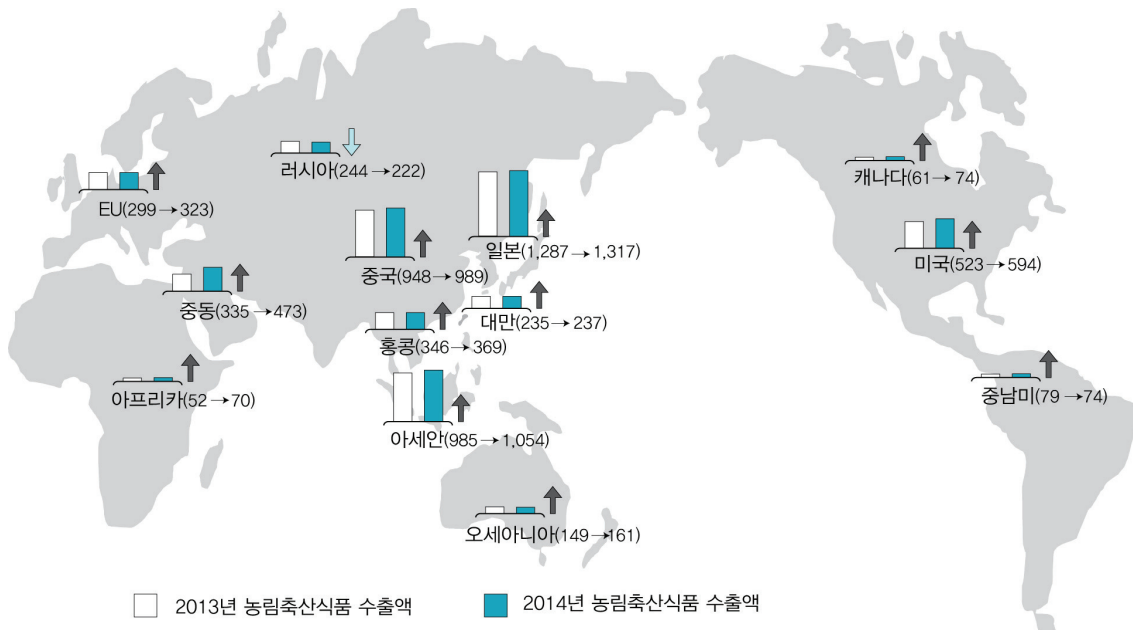
- (일본) 상반기는 엔저의 장기화와 험한기류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의 경기부양책으로 일본 내 소비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대형 수출품목인 인삼류와 권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아베정권의 재집권에 따른 엔저 기조 강화와 소비세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의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
- (ASEAN) 태국의 정세 불안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딸기, 비스킷, 음료 등의 수출이 급증하여 일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농식품 수출이 1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으로 상반기 수출실적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하반기에는 한국 드라마의 열풍과 K-Food Fair 개최('14.9) 등 각종 판촉 노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미국) 소비심리가 지난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대미 농식품 수출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 내 웰빙 제품과 이국적 맛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곡류조제품·고추장·비스킷 등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 (EU) 상반기 그리스 재정위기, 러시아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심리 상승과 유럽 내 한국식품 입점 증가로 대EU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 국제 유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현지 소비 심리가 경색되어 대러시아 농식품 수출이 급감하였다.

2014년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3			2014			증감률		
	1~6월	7~12월	1~12월	1~6월	7~12월	1~12월	1~6월	7~12월	1~12월
일본	619	667	1286	658	659	1317	6.2	△1.2	2.4
ASEAN	490	496	985	553	501	1054	13.0	1.0	7.0
중국	467	481	948	459	531	989	△1.8	10.3	4.3
미국	253	270	523	282	312	594	11.5	15.8	13.7
홍콩	170	177	346	188	181	369	11.0	2.3	6.6
EU	154	144	298	152	170	323	△1.2	18.6	8.4
대만	106	128	235	112	125	237	5.2	△2.4	1.0
러시아	118	126	244	114	108	222	△3.8	△14.5	△9.3
기타	405	455	859	510	572	1082	26.1	25.8	25.9

2013-2014년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실적



4) 2014년 농식품 수출 평가

● 세계경기 회복 부진과 일본의 엔화 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2013년 이후 엔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과 러시아의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국, 러시아, EU지역으로의 수출이 다소 부진하였다.

– 다만, 대일본 수출은 일본 내 소비심리 회복으로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크게 호전되었다.

– ASEAN 지역 수출 성장세 지속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하반기 EU) 회복으로 인한 수출액 증대에 힘입어 최초로 농식품 수출은 6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 주요 통화 대비 원화 평가절상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실익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주요 수출국의 환율 정책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수출액을 원화로 환전 시 실익은 성과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 수출업체의 채산성은 악화되었다.

■ 주요국의 최근 3개년 환율 추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	4월	7월	10월	12월
원/미국달러 (기준환율)	1,126.9	1,095.0	1,053.2	1,064.8	1,044.6	1,019.9	1,060.3	1,104.3
원/일본엔(100엔)	1,413.1	1,123.4	996.2	1,022.8	1,018.6	1,003.0	982.7	925.1
원/유로	1,448.2	1,453.6	1,398.8	1,451.2	1,442.0	1,382.0	1,344.6	1,361.4
원/중국원(元)	178.6	178.1	171.0	176.0	167.9	164.5	173.1	178.5

자료 : 한국은행(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통계자료, 평균자료).



- 따라서 환변동보험 등 농식품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방안 마련 및 지원과 함께 급격한 원화절상 시 정책당국은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과 같은 적절한 시장 개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전체 농식품 수출에 대한 대일본 시장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신선농식품 수출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EU, ASEAN 시장의 높은 수출 성장률로 인하여 대일본 수출 의존도는 25%에서 20%대로 낮아졌다.
 - 반면, 신선농식품의 경우는 여전히 일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엔저 장기화에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선농식품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일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 **농식품 수출에서 한류 드라마 등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재강조되는 한 해였다.**
 -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지역과, ASEAN 지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류 드라마와 K-POP의 영향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일정 수준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 특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농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중국 내 한국식 치킨점의 매출액은 30%이상 증가하였다.

2. 2015년 농식품 수출환경 전망

1) 세계경제

● 2015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년(2.6%)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경제는 유가하락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반면, 유럽 내지 일본의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선진국의 경우 2014년 1.8%보다 소폭 상승한 2.2% 성장이 예상된다.
 - 미국의 경제회복세가 유지되고, 유로존은 지난해와 같이 소폭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신흥개도국의 경우도 지난해 4.4%보다 높은 4.8%로 전망되고 있다.
 -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2015년에는 7.1% 성장하여 7%대의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세계 경제 전망 ■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e	2015년 ^f
세계	2.4	2.5	2.6	3.0
선진국	1.4	1.4	1.8	2.2
미국	2.3	2.2	2.4	3.2
유로존	-0.7	-0.4	0.8	1.1
일본	1.5	1.5	0.2	1.2
영국	0.7	1.7	2.6	2.9
러시아	3.4	1.3	0.7	-2.9
신흥개도국	4.8	4.9	4.4	4.8
중국	7.7	7.7	7.4	7.1
인도	6.3	5.8	5.1	5.2
동유럽	1.9	3.7	2.4	3.0
중남미	2.6	2.5	0.8	1.7
중동·북아프리카	1.4	0.5	1.2	2.5

자료 : 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5.1.

2) 2014년은 추정치이며, 2015년은 전망치임.



2) 주요 지역별경제

● [미국] 2014년의 소비와 고용의 호조세가 이어져 3.2%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 2014년 5.9%였던 실업률이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5.4~5.6%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수요 증가 및 저금리로 인해 주택시장 상황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소비세 인상의 소비 위축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무를 전망이다.

- 일본은 소비세 인상 이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설비투자 부족과 소폭의 수출 증가로 경기부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 [중국] 2015년 경제성장률은 7.1%로 2014년 대비(7.4%)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 투자, 수출,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어 7% 초반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완화 정책 등 경기 안정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 [유로존] 2014년 0.8%, 2015년 1.1% 성장하여 미미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유럽재정 위기 이후 금리인하 정책 등 본격적인 양적완화 노력과 국제유가 안정 및 유로화 절하 등의 여건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2015년에도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인도경제는 제조업 부문 성장과 해외자본 유입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저유가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인 높은 에너지 보조금을 개혁할 기회를 맞이하여 경제성장 전망이 상당히 낙관적이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저유가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경제

2015년 내수 및 수출 경기가 호전되어 전년대비 연간 3.8% 성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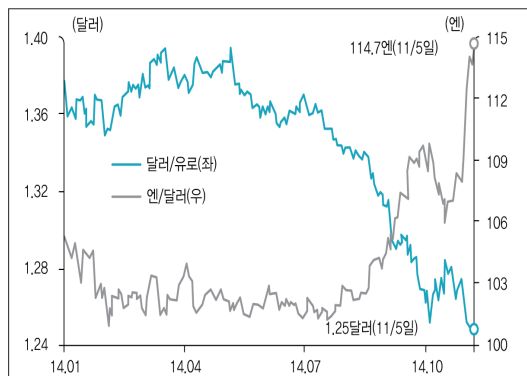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맞물려 2014년보다 빠른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내수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투자여건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 수출은 그간 미국 등 지역으로 수출 증가세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세계경제 회복 및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투자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4) 환율 및 유가

2015년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수준인 연평균 1,070원대, 엔/달러 환율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어 연평균 920원 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무역/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어 연평균 1,070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엔화는 급속한 약세와 원화의 점진적 약세가 맞물려 연평균 928원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 2014년 주요환율 변동 추이 ■



■ 2015년 주요 환율 전망 ■

	원/달러(원)	원/엔(원)	엔/달러(엔)	달러/유로(달러)
'14.4Q	1,070	946	113	1.24
2014(Y)	1,050	995	106	1.33
'15.1Q	1,073	937	114	1.23
'15.2Q	1,073	932	115	1.23
'15.3Q	1,068	921	116	1.22
'15.4Q	1,068	920	116	1.21
2015(Y)	1,070	928	115	1.22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중미 통화정책의 차이(중국 완화,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 긴축 전환)로 위안화 약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유가는 원유생산 확대로 배럴당 55~65달러(Dubai 기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 및 미국의 원유생산 확대로 국제유가 하락폭은 상당수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5년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요 기관들의 2015년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

기관	유종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CERA (‘14.12.9)	Dubai	105.5	97.1	63.9	58.6	64.4	66.2	63.3
	Brent	108.6	99.5	66.7	61.3	67.0	69.0	66.0
	WTI	98.0	93.6	60.9	56.1	61.8	57.2	59.0
EIA (‘14.12.9)	WTI	97.9	93.8	60.3	58.3	65.0	67.3	62.8
	Brent	108.6	99.5	65.0	63.7	70.7	73.0	68.1
PIRA (‘14.12.5)	Brent	108.7	99.9	74.4	72.9	76.0	80.0	75.8
	WTI	97.9	94.0	66.9	65.8	69.7	72.2	68.6

자료 : CERA(美 미국의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美 석유산업연구소).

5) 통상환경

●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 그중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까지 총 11건이 발효되었다.
- 특히, 지난해에 타결된 한·중 FTA가 발효되면, FTA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FTA 체결국 현황(2015.1월 기준)

구분	건수	체결국
발효	11건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EU(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미국, 터키(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은 미발효(타결)), 호주, 캐나다
타결	4건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우리나라 농산물¹⁾ 수출 중 FTA 발효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2,085	2,222	2,304	2,532	3,048	3,298	4,082	5,384	5,645	5,724	6,185
FTAs ²⁾	490	520	546	582	786	854	1,133	1,483	1,647	1,759	2,048
	23.5%	23.4%	23.7%	23.0%	25.8%	25.9%	27.8%	27.5%	29.2%	30.7%	33.1%
칠레	1	1	1	1	3	3	3	4	5	6	8
싱가포르	19	22	21	25	33	43	82	81	97	101	109
EFTA	2	2	3	2	3	6	5	5	4	5	6
ASEAN	117	143	184	214	271	325	522	756	828	952	1,054
인도	5	5	6	9	12	14	16	22	22	38	43
EU	59	64	45	52	145	157	202	261	303	261	323
페루	1	0	0	0	1	1	1	1	1	2	4
미국	285	280	282	302	335	338	377	419	473	480	594
터키	1	3	4	2	16	10	7	15	11	15	16

주 1. 농산물은 수산물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농산물+축산물+임산물).

주 2. FTAs는 연도별로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발효일에 관계없이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하였다. 표에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해당 FTA가 발효된 기간으로 표의 'FTAs' 항목에서 합산된 값임.

주 3. 싱가포르는 ASEAN에 속한 국가로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 이후로는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싱가포르 FTA는 'FTAs' 항목에 합산하지 않았음.

자료 : K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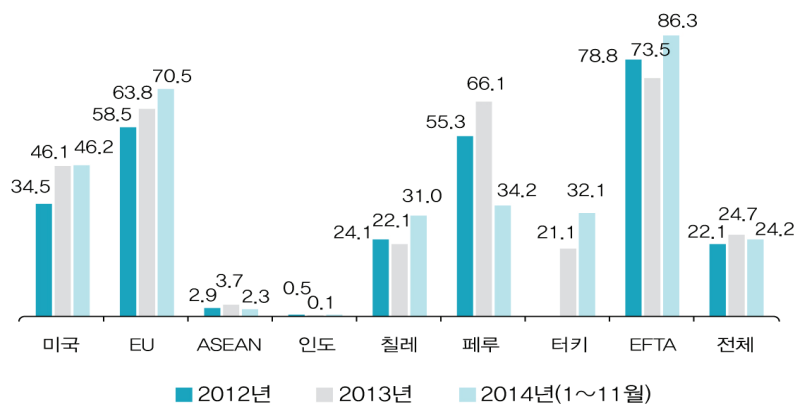
- 2014년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6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20억 5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6.4% 성장하였다.
 -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3.5%에서 2014년 33.1%로 상승하여 9.6%p의 큰 상승폭을 보였다.
 - 한·칠레 FTA 발효('04) 이후 농축산물 수출은 연평균 11.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15.4%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 농축산물 수출의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2014년도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액은 약 19억 6천만 달러이며, 그 가운데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수출액은 약 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0.6%p) 하락한 24.2%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였다.
 - 2014년 기준,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EFTA(86.3%), EU(70.5%)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5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ASEAN, 인도,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EU(6.7%p), 칠레(8.9%p), 터키(11.0%p), EFTA(12.8%p)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주요 FTA 이행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활용도 ■

(단위: %)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3년 11월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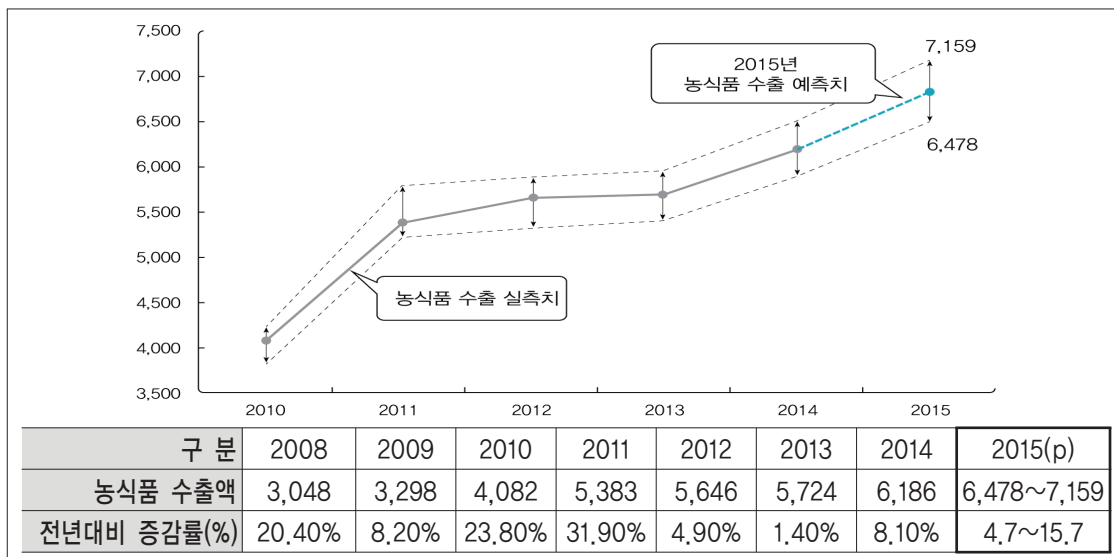
3. 2015년 농식품 수출 전망

● 2015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4.7~15.7% 증가한 64.8~71.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도 세계경제는 저유가와 미국 경제 회복, 세계적 저금리 기조 등에 기인하여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5년도 농식품 수출은 정부의 공세적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기침체, 여러 지정학적 분쟁 위험, 석유 수출국의 재정 문제 등 수출 저해요인들이 나타날 경우 농식품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2015년 농식품 수출전망치는 최소 64억 8천만 달러에서 최대 71억 6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14년 농식품 수출액 61억 9천만 달러보다 각각 4.7%, 15.7% 증가한 것이다.

Ⅱ 2015년 농식품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비중(%))



주 1. 2015년 농식품 수출 전망치 결과는 농식품 수출공급 반응함수 추정에 의한 것임.

주 2. 2015년도 거시경제전망치: 원달러 환율=1,070원, 엔달러 환율=105엔, 농가판매가격지수(2005=100)=121.5,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2010=100) 중 농산물지수(계약통화기준)=115.0, 농림생산액=48.3조원



-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성장세는 지속되겠으나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 [일본] 엔저의 지속과 소비 위축으로 대일본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나 소비심리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ASEAN] 소비시장 확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ASEAN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기 약진이 전망되며, 2015년 말에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로 인하여 소비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한국산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수출 정책과 한류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한중 FTA를 계기로 검역·식품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양국 간 조속한 협의의 통해 완화될 경우 올해도 대중국 농식품 수출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대중국 농식품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 [미국] 소비확대로 대미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와 같은 높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 3%대에 이르는 경제성장과 미국 내 웰빙·이국적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특히, 유가 하락 효과와 고용 증가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가 맞물려 미국 내 소비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대미 농식품 수출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지난해 선전하였으나 올해는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유로 경기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나 유로화 약세, 실업률 증가의 영향으로 한국산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 **농식품 수출업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환위험관리, FTA 특혜관세 활용, 글로벌 온라인 수출 마케팅 도입 등이 필요하다.**

● **원화 강세에 따른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일본의 엔화 약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 또한 하락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업체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특히, 장기적으로 달러대비 위안화가 절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환율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환위험에 대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대처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수출 환변동 보험 가입대상 농식품업체 6,000여개 중 8월말 기준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41곳으로 0.68%에 그쳤다.

● 대안으로 농식품 수출업체가 환율변동을 농식품 수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 인식해야 하며,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적절한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의 환율 관련 전문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환위험으로부터 선제적인 대비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농식품 수출업체는 선물환거래, 환변동보험 등의 환리스크 관리 방법을 통해 장래의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의 90%를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 **FTA 활용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 동시 다발적인 FTA로 올해 FTA 교역량 비중은 전체 교역량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FTA 특별관세 혜택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지난해 농축산물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실적은 24.2%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식품 수출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규정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거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그동안 FTA 활용 관련 전문지식 또는 전문인력 문제로 FTA를 활용하지 못 하였던 수출업체들은 관세청, aT 및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수출품목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FTA 체결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정책적으로는 기존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화와 수출업체의 원활한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보급·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 제고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온라인 수출 마케팅 도입을 통한 수출판로 모색이 필요하다.

● 생활용품에서 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B2B)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수출업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온라인 수출은 ① 손쉬운 해외수출 판매 채널 확보 ② 부가세 영세율 혜택 ③ 최소한의 투자비용·높은 상품 판매 마진 ④ 부가적 수출기회 확보(B2B) 등의 장점이 있어 대부분이 영세한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 특히,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에 개설된 ‘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장’은 온라인 상에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농식품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연회비, 홍보비는 물론 상품꾸러미 구성 등 고정비용과 농식품 특성상 온라인 배송체계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직접적 판로개척 보다는 전문적인 온라인 운영 대행업체를 통합 간접적인 판로 모색이 필요하다.

II. 국제 금융시장

작성자: 양다영

1. 국제 외환시장
2. 국제 상품시장

1. 국제 외환시장

●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는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 ECB 추가 통화부양 기대,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폐지 등으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2003년 11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 미국 3/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지난 7년 동안의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3.9% → 5.0%, 전기대비 연율)되는 등 주요국 간 경기회복과 통화정책 차별화가 지속되면서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 정국불안,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고조와 이에 따른 ECB의 추가 통화부양 기대,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더욱 하락하였다(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

–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0.2%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사법재판소가 ECB의 국채매입(OMT)이 EU 조약에 합치된다고 판결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1/14).

–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1년 9월 도입했던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의 환율 하한선(1.20 스위스 프랑)을 폐지하고 통화강세를 용인하기로 한 바 있다(1/15).

●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강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수출기업의 달러화 공급 등으로 하락하였다.**

■ 주요 환율 동향 ■

구분	2015.1.16 (현재)	2014.12.16 (1개월전)	2014.1.16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 ¹	92.52	88.13	80.91	4.99%	14.35%
달러/유로	1.1567	1.2511	1.3620	-7.55%	-15.07%
엔/달러	117.51	116.41	104.35	0.94%	12.61%
위안/달러	6.2037	6.1908	6.0540	0.21%	2.47%
원/달러	1077.3	1086.7	1063.4	-0.87%	1.31%

주 :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출처 :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원유 생산국들의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에 따른 공급 증가로 배럴 당 40달러 대로 하락하였다.

● 최근 유가 급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UAE 등 주요 원유 생산국들은 감산 불가 또는 증산 가능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사우디 석유장관은 어떠한 가격 수준에서도 OPEC은 감산하지 않을 것이며, 고객들이 원한다면 증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12/22).

– 러시아의 12월 원유 생산량이 1,067만 b/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라크의 12월 원유 수출량도 294만 b/d로 3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1/5)

– UAE 에너지장관은 세계 원유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생산량을 350만 b/d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1/13)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원유 재고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유가 하락세를 가속화하였다(1/9 기준 미국의 원유재고는 전주대비 1.4%, 전년대비 10.7% 증가한 3억 8,778만 배럴을 기록, 미국 EIA).

● 세계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주요 기관들의 유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었다.

– OPEC은 2015년 대OPEC 석유수요를 2,878만 b/d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MOMR 2015.1).

– 골드만삭스는 2015년 Brent유 전망치를 배럴 당 80달러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하였다(1/12).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구분	2015.1.16 (현재)	2014.12.16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WTI유	48.69	55.94	-12.96%
Dubai유	43.92	56.50	-22.27%
Brent유	50.17	60.14	-16.58%

출처 : Bloomberg.

● 시카고에서 거래된 주요 곡물 가격은 연말연시 차익 실현 물량 유입, 미 농무부의 2014/15년도 미국의 주요 곡물 공급량 전망치 상향 조정 등으로 하락하였다.

● 러시아의 밀 수출에 대한 관세 도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맥 가격은 연말연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대규모 유입되면서 하락하였다.

– 러시아 정부는 국내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2015년 2월부터 밀 수출에 대해 톤당 35유로 미만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12/26)

●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가격도 국제곡물펀드의 매도 물량 유입으로 하락하였다.

–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다(12/24)

● 한편, 미 농무부(USDA)는 미국 소맥, 대두 등 주요 곡물의 2014/15년 공급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WASDE 2015.1).

– 2014/15년도 미국의 대두 생산량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월의 39억 5,800만 부셸에서 39억 6,900만 부셸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미국의 소맥 공급량 전망치도 소폭 상향 조정(27억 9,500만 부셸 → 27억 9,600만 부셸)된 반면, 옥수수 공급량 전망치는 하향 조정(156억 6,800만 부셸 → 154억 7,200만 부셸)되었으나 소비량 전망치도 하향 조정(136억 7,000만 부셸 → 135억 9,500만 부셸)되면서 가격 하락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구분	2015.1.16 (현재)	2014.12.16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소맥	532.75	623.25	-14.52%
옥수수	387.00	406.00	-4.68%
대두	991.75	1023.50	-3.10%

주 : 근월물(최근 선물) 기준

출처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III.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작성자: 박지현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미국, 농식품 잔류농약 한계치 WTO에 통보(2014. 11. 24)¹⁾

● 미국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에 따라 농식품의 잔류농약 허용한계치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2014년 10월, 11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잔류농약 한계치 규정이 제정될 때마다 이를 WTO에 통보하고 있다.

■ 미국 주요 농식품의 잔류농약 한계치 규정 ■

품목	농약	Parts per million (ppm)	발효일자
채소	Fluensulfone	0.5	2014.9.24
사과	Thiabendazole	12.0	2014.9.25
바나나	Thiabendazole	3.0	2014.9.25
보리(곡물)	Thiabendazole	0.05	2014.9.25
당근	Thiabendazole	10.0	2014.9.25
옥수수(곡물)	Thiabendazole	0.01	2014.9.25
망고	Thiabendazole	10.0	2014.9.25
버섯	Thiabendazole	40.0	2014.9.25
양파	Thiabendazole	0.02	2014.9.25
감자	Thiabendazole	10.0	2014.9.25
호밀(곡물)	Thiabendazole	0.05	2014.9.25
대두	Thiabendazole	0.1	2014.9.25
밀(곡물)	Thiabendazole	0.05	2014.9.25
체리	Metrafenone	2.0	2014.10.22
배	Metrafenone	0.7	2014.10.22
채소(cucurbit)	Metrafenone	0.5	2014.10.22
채소(tuberous and corn)	Paraquat	0.5	2014.10.29

출처 : Federal Register, Volume 79, Number 185, 186, 204, 209

1) G/SPS/N/USA/2705, G/SPS/N/USA/2704, G/SPS/N/USA/2711, G/SPS/N/USA/2718

일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에 대한 개정안 WTO에 통보(2014. 10. 27)²⁾

-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2014년 10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농약 Propiconazole, Epoxiconazol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MRLs)는 다음과 같다.

■ 농약 Propiconazole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 개정안 ■

농약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Propiconazole	호밀	0.3	0.05
	대두	2	0.05
	땅콩	0.2	0.05
	사탕무	0.3	0.05
	양파	0.2	0.05
	당근	0.3	0.05
	파슬리	13	0.05
	딸기	1	0.05
	달걀	0.01	0.05

자료 :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4801_00_e.pdf.

■ 농약 Epoxiconazol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 개정안 ■

농약	품목	MRL(개정안) ppm	MRL(현재) ppm
Epoxiconazol	밀	0.2	0.5
	보리	1	0.5
	호밀	0.2	—
	대두	0.05	—
	땅콩	0.05	—
	바나나	0.5	1
	아보카도	—	0.5
	커피콩	0.05	—
	우유	0.002	0.01

자료 :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4802_00_e.pdf.

2) G/SPS/N/JPN/354, G/SPS/N/JPN/355, G/SPS/N/JPN/357

● 일본, 조개(bivalves)의 설사성 패류독소(diarrhetic shellfish toxin) 기준 개정 (2014. 10. 27)³⁾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6조 2항에 따라 조개의 설사성 패류독소의 기준 지표를 오카다산(okadaic acid)⁴⁾에 대해 0.05MU/g에서 0.16mg/kg으로 변경한다고 2014년 10월 27일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⁵⁾

- 일본 식품위생법 제6조 2항은 독소 및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혐의가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기 위해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및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일본, 사료 및 사료첨가물 기준 법령 시행 수정안 WTO에 통보(2014. 10. 20)⁶⁾

● 일본은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대한 농약 최대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MRLs) 수정안을 2014년 10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대한 농약 최대잔류허용치 수정안 ■

농약	품목	MRL(수정안) mg/kg	MRL(현재) mg/kg
Alachlor	보리	revoke	0.05
	옥수수	0.02	0.2
	호밀	revoke	0.05
	당밀	0.05	0.1
	건초	0.05	3
Fenthion	옥수수	revoke	5
Aldicarb	보리	0.02	0.02
	밀	0.02	0.02
	옥수수	0.05	0.05
	귀리	0.2	0.2
	당밀	0.2	0.2
	호밀	revoke	0.02
	건초	1	1

출처 : <http://members.wto.org> (2015년 1월 16일 검색)

3) G/SPS/N/JPN/372

4) Dinophysis속 적조생물이 생산하는 설사성 패류독(DSP,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성분의 일종(해양 과학용어사전, 2005.10.7. 아카데미서적)

5)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sps/JPN/14_4800_00_e.pdf

6) G/SPS/N/JPN/366, G/SPS/N/JPN/367, G/SPS/N/JPN/368

2014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5년 전망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발 행 일 : 2015. 2.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9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 931-0875

- 「aT get」은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